

청년기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의 발달*

진 미 경¹⁾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놀이치료전공

본 연구는 청년기동안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남녀 중·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 211명을 대상으로 정서관계그림검사(The Picture Affective Relationship Test)를 실시하여, 심리적 기능들의 영역(근접성 추구, 정서적 지지, 행동에 대한 확신받기, 격려와 도움, 정보와 경험의 나눔, 보살핌 주기)별로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라 어떠한 양상이 나타나는지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보살핌 주기 영역에서 성별과 연령에 따라 가까운 사회적 관계 유형의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남자 집단에서는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대상이 동성친구, 다음으로 높은 응답을 보인 대상이 어머니로 나타났으며, 여자 집단에서는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대상이 어머니, 다음으로 높은 응답을 보인 대상이 동성친구로 나타났다. 또한 중·고등학생 연령집단에서는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대상이 동성친구, 다음으로 높은 응답을 보인 대상이 어머니로 나타났으며, 대학생 연령 집단에서는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대상이 어머니, 다음으로 높은 응답을 보인 대상이 아버지로 나타났다.

주요어 : 청년기, 가까운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망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11학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1) 교신저자 :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조교수 (E-mail : mkjin12@sookmyung.ac.kr)

I. 서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접하게 된다. 생존, 안전, 복지를 위해 다수의 중요한 타인들과 상호작용을 갖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유아기의 주양육자(정성훈, 진미경, 정운선, 임효덕, 2006; 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Bretherton & Waters, 1986; Cassidy & Shaver, 1999; Kobak & Hazan, 1991), 아동기의 또래관계(Dodge, Pettit, McClasky, & Brown, 1986; Jones & Vaughan, 1990; Parker & Gottman, 1989; Urberg, Degirmencioglu, Tolson, & Halliday-Scher, 1995),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낭만적 파트너(Hazan & Shaver, 1987, 1990; Shaver, Hazan, & Bradshaw, 1988)와 같은 양자 관계에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통적인 양자 패러다임을 넘어서 각 개인이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친구들 등 가까운 타인들을 포함한 다수의 중요한 타인들로 구성된 사회적 관계를 갖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Belle, 1989; Hinde, 1981; Kahn & Antonucci, 1980; Lang & Carstensen, 1994; Lewis, 1982, 1984; Pierce, Sarason, & Sarason, 1996; Takahashi, 1974, 1990).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다음의 가정을 추출해 낼 수 있다. 개인들은 다수의 타인들 각각에, 다른 사회적 역할을 할당하는 일종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내적 틀의 개인적 유형을 갖는다는 것이다. 개인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모델을 소개하자면 Kahn과 Antonucci(1980)의 호위대 모델(convoy model)이 있다. 구체적으로 Antonucci와 그녀의 동료들은 그들의 연구에서

개인에게 정서적으로 가깝고 중요한 사람을 기술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중요한 인물들을 세 개의 원으로 분류하여 그리도록 하였는데, 평균적으로 셋 혹은 네 명의 인물을 신뢰, 안심, 존경, 아플 때 돌봄, 화가 났을 때 이야기하기 등을 제공하는 안쪽 원에 배치하였고, 중간 원에 배치된 인물들은 존경과 아플 때 돌봄을 제공하였으며, 바깥원에 배치된 인물들은 단지 존경만을 제공함을 발견하였다(Antonucci & Akiyama, 1987; Antonucci, Fuhrer, & Dartigues, 1997). 이 모델에 따르면 동심원의 중심에서부터 외곽으로 내부원(inner circle), 중간원(middle circle) 외곽원(outer circle)의 3개의 동심원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원은 모두 개인에게 중요한 사람들을 포함하지만 각기 다른 수준의 가까움을 나타낸다. 내부원의 구성원들은 개인에게 가장 가깝고 중요한 사람들을 포함하고, 중간원은 내부원의 구성원들만큼 가깝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우 가깝고 중요한 사람들을, 외곽원은 내부원과 중간원 속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깝고 중요하며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포함한다(장휘숙, 2011).

특히 이들 동심원 중 내부원의 구성원들에 대해 Kahn과 Antonucci(1980)는 애착관계로 규정하고, 각 구성원들은 개인의 애착대상으로서 각기 다른 영역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입증한 연구로 Hazan과 Zeifman(1994)는 애착대상의 기능으로 근접추구(proximity seeking) 기능과 분리저항(separation protest) 기능, 안전기지(secure base) 기능 및 안전한 피난처(safe haven) 기능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하였다. 각각의 기능의 개념을 설명하자

면, 근접추구 기능은 애착인물과의 근접을 추구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분리저항 기능은 애착인물과 떨어져 있거나 분리되는 것에 저항하는 역할을, 안전기지 기능은 애착인물과 함께 있을 때 마음 놓고 탐색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안전한 피난처 기능은 위협적인 대상이 나타나면 탐색행동을 멈추고 애착인물로 후퇴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의미한다(장휘숙, 2011). 구체적으로 Hazan과 Zeifman(1994)의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은 부모보다 동성의 친구들과 시간 보내는 것을 더 선호하였고, 동성의 친구는 위안과 정서적 지원의 근원으로서 부모보다 더 선호되는 대상으로 나타나 동성친구는 주로 근접추구와 안전한 피난처 기능을 하는 대상인 반면 부모는 분리 저항과 안전기지의 기능을 하는 대상으로 나타나, 애착대상으로서 부모와 동성친구는 각기 상이한 기능을 함이 보고되었다. 또한 Hazan과 Zeifman(1994)는 이들 연구에서 청년후기는 낭만적 파트너가 부모를 대치하는 것을 보고하였는데, 이 역시 애착인물의 기능과 역할이 변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들의 연구와 같이 한국의 중년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장휘숙(2011)의 국내 연구에서도 내부원의 구성원들이 애착대상으로서 기능함이 보고되었다. 이들과 유사하게 Takahashi(2004) 역시 애착대상의 영역 구분을 좀 더 확장하여 여섯 가지의 심리적 기능 영역(근접성 추구, 정서적 지지, 행동에 대한 확신받기, 격려와 도움, 정보와 경험의 나눔, 보살핌 주기)별로 개인에게 가장 가깝고 중요한 인물이 누구인지가 다르게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가까운 사회적 관계의 발달은 여러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연령별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연령은 사회적 관계를 맺어온 시간과 경험의 양에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있어, 가까운 사회적 관계 발달의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가정될 수 있을 것이다. 연령에 따라 개인이 형성하는 사회관계망의 크기와 비친족 관계의 증대를 논의한 Fischer(1982)의 주장은 위의 가정을 뒷받침한다. 구체적으로 연령에 따라 정서적 지원자변화를 연구한 Furman과 Buhrmester(1992)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가장 빈번한 정서적 지원 제공자는 부모로 나타났으며, 7학년에는 동성의 친구가 부모와 동일한 정도의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0학년에는 친구들이 가장 빈번한 지원제공자로, 대학생 때는 이성친구가 동성친구 및 어머니와 동등한 정도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른 정서적 지원자의 변화가 입증되었다. 또한 Antonucci, Akiyama와 Takahashi(2004) 역시 연령에 따라 내부원과 중간원 및 외곽원의 크기와 각 원에 포함된 구성원들이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중년의 성인들은 내부원과 중간원 및 외곽원 속에 노인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고, 내부원에는 배우자와 아들 딸 및 어머니를, 중간원에는 형제자매와 친구를 그리고 외곽원에는 친구를 보고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한편 연령과 함께 성별 또한 가까운 사회적 관계의 발달과 관련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많은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고 가까운 관계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으며

로(Antonucci, Akiyama, & Lansford, 1998; Birditt & Fingerman, 2003), 동심원 각각의 크기와 구성원에서 성차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연구(Campbell, 1990; Fischer, 1982; Moore, 1990)에서, 남녀가 동일한 크기의 관계망을 갖기는 하지만 상대적 구성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는데 이에 대해 위 연구자들은 남녀의 사회구조적 위치가 다른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논의하였다. 여성들은 경제, 정치, 이념적인 자원을 적게 갖고 있어 비친족과의 관계를 형성할 기회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망의 구성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개인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내적 틀의 이해를 위해서는 개인의 다양한 심리적 기능들에 따라 사회적 인물들을 어떻게 배치하는지, 이는 개인의 특성(성과 연령)등과 어떻게 관련되는지가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양자 패러다임을 넘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의 발달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심리적 기능들에 따라 사회적 인물들을 어떻게 배치하는지, 다른 문화권에서 실시된 선행연구들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청년기는 전생애의 어떤 시기에서보다 친구가 중요시되는 시기일 뿐 아니라 청년후기에 이르면 이성친구가 중요해질 것으로 추정되므로, 중·고등학교 남녀 학생들과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기능들의 영역별로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라 어떠한 양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Takahashi, Inoue, Yamakawa, & Shibata, 2009)의 연구에서 호위대 모델의 검증을 위해 사용된 정서관계그림검사(The Picture Affective Relationship Test)를 우리나라에 처음 적용하여 가까운 사회적 관계 유형을 측정하여 실시하고자 하며, 비교적 우리나라와 가까운 동양 문화권인 일본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 발달 양상이 어떠한지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 발달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관점의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성별에 따라 심리적 기능 영역별로 가까운 사회적 관계 유형이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연령에 따라 심리적 기능 영역별로 가까운 사회적 관계 유형이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집단간(남중고/대학생, 여중고/대학생)에 심리적 기능 영역별로 가까운 사회적 관계 유형이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중·고등학생에 대한 표집은

경기 지역에 위치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각 한 곳의 2개 학급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대학생에 대한 표집은 경기지역에 위치한 한 대학의 심리관련 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대상 표집은 2011년 9월 셋째 주와 넷째 주 2주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한 학급당 실시절차에 대해 연수를 받은 6명의 심리관련 전공 대학원생들이 조를 나누어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연령별, 성별 특성으로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상이 각각 65명(30.8%, 남: 30명, 여: 35명), 61명(28.9%, 남: 30명, 여: 31명), 85명(40.3%, 남: 11명, 여: 74명)으로 대학생 집단에서 성비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전체적인 성비는 남성 71명(33.6%), 여성 140명(66.4%)의 분포를 보였고, 연구대상의 평균연령은 중학생 집단이 15.11세, 고등학생 집단이 18세, 대학생 이상의 집단이 22.82세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가까운 사회적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정서관계그림검사(The Picture Affective Relationship Test, 이후 PART)를 실시하였다. PART는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을 살펴보기 위해, 정서적 관계에 기반되어 구성된 가까운 사회적 관계를 측정하는 18개 카드로 구성되어 있다(Takahashi, 1990; Takahashi & Sakamoto, 2000). 대상자의 나이에 따라 PART-YC는 1-6세 아동을 위한 버전, PART-SC는 초등학생을 위한 버전, PART-EL은 초등학교 이

상을 위한 버전으로 구성되어진다. 각 카드는 타인을 향한 정서적 행동을 나타낼 상황을 제시하며, 여섯 가지의 심리적 기능(근접성 추구, 정서적 지지, 행동에 대한 확신받기, 격려와 도움, 정보와 경험의 나눔, 보살핌 주기)이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각 기능에 해당하는 문항을 소개하자면, 근접성 추구(예: 이야기하고 싶을 때 누구와 함께 하고 싶습니까?), 정서적 지지(예: 기쁜 일이 생기면 누구와 함께 하고 싶습니까?), 행동에 대한 확신받기(예: 무슨 날인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누구에게 묻고 싶습니까?), 격려와 도움(예: 무엇을 입을지 혼자 결정하기 어려울 때 누구에게 조언을 받고 싶습니까?), 정보와 경험의 나눔(예: 만약 우주를 여행할 수 있다면 누구와 함께 하고 싶습니까?), 보살핌 주기(예: 누군가 어려움을 가질 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까?)와 같다. 검사자는 개인에게 가족구성원(누구와 몇 명으로 구성)에 대해 묻고, 또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예를 들어 친구, 삼촌, 이모, 고모, 사촌, 할머니, 할아버지, 이웃사람들 등)에 대해 언급한다. 이후에 카드를 보여주며 각 카드에 나타난 상황에서 어떠한 사람을 원하는지 응답하게 하여 응답이 나온 빈도수를 바탕으로 가까운 관계에 대한 유형을 평가하게 된다. 이 도구의 신뢰도와 관련하여서는 2주 뒤 재검사를 하였을 때 유형의 일치율이 72%(Inoue & Takahashi, 2000)로 나타났고, 타당도와 관련하여서는 정서관계척도(The Affective Relationships Scale)와의 일치도가 87%로 보고되었다(Takahashi & Tokoro, 1999).

3. 자료처리 및 분석

질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사항과 심리적 기능의 6개 영역 별 가까운 사회적 관계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문제 1, 2, 3을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 수가 많지 않고, 또한 종속변인인 심리적 기능 별 가까운 사회적 관계유형의 범주가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 선생님, 동성친구, 이성친구 등 많은 수의 범주로 나뉘지는 특성 때문에 교차분석 시 추리통계 값인 χ^2 값을 해석할 수 있는 전제조건, 즉, 기대빈도 5이하인 셀이 20% 이하인 경우가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이

러한 경우, 교차분석의 결과에 대한 해석은 연구대상에 대한 기술통계량의 해석으로만 제한하였고, χ^2 에 대한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만 모집단에 대해 추론하고 해석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연구문제의 분석에 앞서 각 심리적 기능 영역별 가까운 사회적 관계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 제시되어 있는 결측치는 각 심리적 기능 영역 별 가까운 사회적 관계 유형이 정확히 분류되지 않는 경우, 즉, 본 논문에서의 측정도구 사용과 채점방식을 적용했을

표 1. 심리적 기능 영역 별 가까운 사회적 관계 유형에 대한 빈도 분석

	근접성 추구	정서적 지지	행동에 대한 확신받기	격려와 도움 받기	정보와 경험 공유	보살핌 주기
어머니	18(8.5)	63(29.9)	115(54.5)	25(11.8)	34(16.1)	52(24.6)
아버지	1(.5)	13(6.2)	9(4.3)	2(.9)	2(.9)	28(13.3)
형제·자매	4(1.9)	6(2.8)	8(3.8)	30(14.2)	18(8.5)	9(4.3)
선생님	0(0)	0(0)	0(0)	0(0)	0(0)	0(0)
동성 친구	119(56.4)	58(27.5)	30(14.2)	77(36.5)	86(40.8)	49(23.2)
이성 친구	18(8.5)	10(4.7)	3(1.4)	2(.9)	14(6.6)	4(1.9)
할머니	0(0)	1(.5)	2(.9)	0(0)	0(0)	0(0)
할아버지	0(0)	0(0)	0(0)	0(0)	0(0)	1(.5)
혼자	0(0)	1(.5)	0(0)	0(0)	0(0)	0(0)
기타	1(.5)	2(.9)	1(.5)	4(1.9)	0(0)	4(1.9)
결측값	50(23.7)	57(27)	57(27)	71(33.6)	57(27)	64(30.3)
합계	211(100)					

주: 빈도(%).

때 어느 유형에 정확히 배치할 수 없는 경우 결측치로 처리하였다. 이는 해석 상 복합유형에 속하는 집단으로 복합유형 또한 독특한 특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본 연구는 명확한 가까운 사회적 관계 유형에 대해 집단별 비교를 해보고자 하였기에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표 1의 결과를 영역 별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자면, 먼저, 근접성추구 영역에서는 가까운 사회적 관계 유형으로 동성 친구가 119명(56.4%)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다음으로 어머니 18명(8.5%), 이성친구 18명(8.5%) 순이었으며, 선생님, 할머니, 할아버지, 혼자라는 응답은 0명(0%)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지지 영역에서는 가까운 사회적 관계 유형으로 어머니가 63명(29.9%)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다음으로 동성친구 58명(27.5%), 아버지 13명(6.2%) 순이었으며, 할머니, 혼자라고 응답한 사람은 1명(5%), 선생님, 할아버지가 가까운 사회적 관계 유형인 경우는 0명(0%)으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행동에 대한 확신 받기 영역에서는 어머니라고 응답한 사람이 115명(54.5%)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다음으로 동성친구에 응답한 사람이 30명(14.2%) 순으로 나타났다. 선생님, 할아버지, 혼자라고 응답한 사람은 0명(0%)으로 가장 낮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격려와 도움 받기 영역에서는 가까운 사회적 관계 유형을 동성친구라고 응답한 사람이 77명(36.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형제·자매 30명(14.2%), 어머니 25명(11.8%) 순

의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할머니, 할아버지, 혼자라고 응답한 사람은 0명(0%)으로 나타났다.

정보와 경험공유 영역에서는 가까운 사회적 관계 유형을 동성친구라고 응답한 사람이 86명(40.8%)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어머니 34명(16.1%), 형제·자매 18명(8.5%) 순이었으며, 선생님, 할아버지, 할머니, 혼자, 기타라고 응답한 사람은 0명(0%)으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보살핌 주기 영역에서는 가까운 사회적 관계 유형을 어머니라고 응답한 사람이 52명(24.6%)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다음으로 동성친구 49명(23.2%), 아버지 28명(13.3%) 순이었으며, 선생님, 할머니, 혼자라는 응답은 0명(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1. 성별에 따른 심리적 기능 영역 별 가까운 사회적 관계 유형의 차이 검증

성별에 따라 각 영역 별 가까운 사회적 관계 유형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살핌 주기 영역을 제외한 5개 영역에서의 교차분석 시 기대빈도 5이하인 셀이 20%를 상위하여 이들 영역에 대해서는 기술통계량에 대한 해석으로만 제한하였고, 보살핌 주기 영역에서만 χ^2 값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통해 모집단의 속성에 대해 추론하였다.

표 2의 결과를 살펴보자면, 심리적 기능의 4개 영역, 즉, 근접추구, 정서적 지지, 행동에

표 2. 성별에 따른 심리적 기능 영역 별 가까운 사회적 관계 유형의 차이검증

근접성 추구										
		어머니	아버지	형제 · 자매	동성 친구	이성 친구	기타	전체	카이제곱 검증	
성별	남	빈도	6	1	0	40	5	0	52	$\chi^2=4.75$ ($df=5$)
		기대빈도	5.8	.3	1.3	38.4	5.8	.3	52.0	
		행비율	11.5%	1.9%	.0%	76.9%	9.6%	.0%	100.0%	
	여	빈도	12	0	4	79	13	1	109	
		기대빈도	12.2	.7	2.7	80.6	12.2	.7	109.0	
		행비율	11.0%	.0%	3.7%	72.5%	11.9%	.9%	100.0%	
전체	빈도	18	1	4	119	18	1	161		
	기대빈도	18.0	1.0	4.0	119.0	18.0	1.0	161.0		
	행비율	11.2%	.6%	2.5%	73.9%	11.2%	.6%	100.0%		
정서적 지지										
		어머니	아버지	형제 · 자매	동성 친구	이성 친구	기타	전체	카이제곱 검증	
성별	남	빈도	20	4	2	23	1	2	52	$\chi^2=4.06$ ($df=5$)
		기대빈도	21.3	4.4	2.0	19.6	3.4	1.4	52.0	
		행비율	38.5%	7.7%	3.8%	44.2%	1.9%	3.8%	100%	
	여	빈도	43	9	4	35	9	2	102	
		기대빈도	41.7	8.6	4.0	38.4	6.6	2.6	102.0	
		행비율	42.2%	8.8%	3.9%	34.3%	8.8%	2.0%	100%	
전체	빈도	63	13	6	58	10	4	154		
	기대빈도	63.0	13.0	6.0	58.0	10.0	4.0	154.0		
	행비율	40.9%	8.4%	3.9%	37.7%	6.5%	2.6%	100%		
행동에 대한 확신받기										
		어머니	아버지	형제 · 자매	동성 친구	이성 친구#	기타	전체	카이제곱 검증	
성별	남	빈도	38	3	4	11	0	2	58	$\chi^2=1.03$ ($df=4$)
		기대빈도	39.7	3.1	2.8	10.4	0	2.1	58.0	
		행비율	65.5%	5.2%	6.9%	19.0%	.0%	3.4%	100.0%	
	여	빈도	77	6	4	19	0	4	110	
		기대빈도	75.3	5.9	5.2	19.6	.0	3.9	110.0	
		행비율	70.0%	5.5%	3.6%	17.3%	.0%	3.6%	100%	
전체	빈도	115	9	8	30	0	6	168		
	기대빈도	115.0	9.0	8.0	30.0	.0	6.0	168.0		
	행비율	68.5%	5.4%	4.8%	17.9%	.0%	3.6%	100.0%		

격려와 도움 받기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동성 친구	이성 친구#	기타	전체	카이제곱 검증	
성별	남	빈도	11	0	8	24	0	3	46	$\chi^2=3.81$ (df=4)
		기대빈도	8.2	.7	9.9	25.3	.0	2.0	46.0	
		행비율	23.9%	.0%	17.4%	52.2%	.0%	6.5%	100%	
	여	빈도	14	2	22	53	0	3	94	
		기대빈도	16.8	1.3	20.1	51.7	.0	4.0	94.0	
		행비율	14.9%	2.1%	23.4%	56.4%	.0%	3.2%	100.0%	
전체	빈도	25	2	30	77	0	6	140		
	기대빈도	25.0	2.0	30.0	77.0	.0	6.0	140.0		
	행비율	17.9%	1.4%	21.4%	55.0%	.0%	4.3%	100.0%		
정보와 경험 공유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동성 친구	이성 친구	기타#	전체	카이제곱 검증	
성별	남	빈도	8	1	3	35	6	0	53	$\chi^2=6.46$ (df=4)
		기대빈도	11.7	.7	6.2	29.6	4.8	.0	53.0	
		행비율	15.1%	1.9%	5.7%	66.0%	11.3%	.0%	100.0%	
	여	빈도	26	1	15	51	8	0	101	
		기대빈도	22.3	1.3	11.8	56.4	9.2	.0	101.0	
		행비율	25.7%	1.0%	14.9%	50.5%	7.9%	.0%	100.0%	
전체	빈도	34	2	18	86	14	0	154		
	기대빈도	34.0	2.0	18.0	86.0	14.0	.0	154.0		
	행비율	22.1%	1.3%	11.7%	55.8%	9.1%	.0%	100.0%		
보살핌 주기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동성 친구	이성 친구#	기타	전체	카이제곱 검증	
성별	남	빈도	13	8	6	22	0	2	51	$\chi^2=9.55$ (df=4, $p<.05$)
		기대빈도	18.0	9.7	3.1	17.0	.0	3.1	51.0	
		행비율	25.5%	15.7%	11.8%	43.1	.0%	3.9%	100.0%	
	여	빈도	39	20	3	27	0	7	96	
		기대빈도	34.0	18.3	5.9	32.0	.0	5.9	96.0	
		행비율	40.6%	20.8%	3.1%	28.1%	.0%	7.3%	100.0%	
전체	빈도	52	28	9	49	0	9	147		
	기대빈도	52.0	28.0	9.0	49.0	.0	9.0	147.0		
	행비율	35.4%	19.0%	6.1%	33.3%	.0%	6.1%	100.0%		

$\chi^2=3.81$
($df=4$)

$\chi^2=6.46$
($df=4$)

$\chi^2=9.55$
($df=4, p<.05$)

주. 각 영역 별 대상의 # 표시는 기대빈도 0으로 실제 교차분석 시에는 제외된 범주임.

대한 확신 받기, 격려와 도움 받기 영역에서 각 셀의 기대빈도와 관측빈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른 행비율 또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성별에 따른 위 4개 영역에서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 유형의 분포 양상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정보와 경험공유 영역에서는 성별에 따른 각 셀의 기대빈도와 관측빈도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행비율 또한 다르게 나타나 정보와 경험공유 영역에서 남녀 별 보여주는 가까운 사회적 관계 유형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각 영역별 기술통계치를 중심으로 해석해 볼 때, 근접성 추구 영역에서 남녀 각각의 집단은 동성친구를 40명(76.9%), 79명(72.5%)으로 융합으로써, 두 집단 모두 근접성 추구의 절대적 대상으로 동성친구에 대해 1순위로 응답하였으며, 아버지라고 응답한 사람이 남 집단에서 1명(1.9%), 여 집단 0명(0%)으로 낮은 행비율을 보이고 있다.

정서적 지지 영역에서는 남 집단의 경우 가까운 사회적 관계 대상이 동성친구 23명(44.2%), 어머니 20명(35.5%)의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여주었고, 여 집단에서는 어머니가 43명(42.2%)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동성친구 35명(34.3%)으로 나타났다. 비록 순위의 차이는 있으나 두 집단 모두 동성친구와 어머니에 대한 응답이 높고, 행비율에서의 차이가 크지 않아 즉, 두 집단 모두 유사한 형태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 유형을 보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행동에 대한 확신 받기 영역에서는 남녀 각

각 어머니를 가까운 사회적 관계로 한 사람이 38명(65.5%), 77명(70.0%)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동성친구 11명(19.0%), 19명(17.3%)로 응답하였으며, 이성 친구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에서 0명(0%)으로 나타나 응답에 있어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격려와 도움 받기 영역에서는 남녀 각각 동성친구가 가까운 사회적 관계라고 응답한 사람이 24명(52.2%), 53명(56.4%)으로 가장 높았고, 어머니와 형제·자매에 대한 응답이 두 집단 모두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이성 친구에 대해 응답한 사람은 남녀 모두 0명(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정보와 경험공유 영역에서는 남녀 모두 동성친구에 대해 1순위로 응답하였으나, 그 비율에 있어서는 남 집단이 35명(66%), 여 집단이 51명(50.5%)으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또한 남자보다 여자 집단에 있어 어머니와 형제·자매에 대해 보다 가깝게 정보와 경험공유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와 경험공유 영역에 있어서는 남녀별 다소 다른 양상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보다 많은 표본을 확보함으로써 이후 모집단에 대한 추론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보살핌 주기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가까운 사회적 관계의 유형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각 대상에 따른 기대빈도와 관측빈도가 매우 다른 양상을 지니며, 성별에 따른 행비율 또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chi^2=9.55(df=4, p<.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이는 즉 보살핌 주기 영역의 남녀에 따른 가까운 사회적 관계 대상은 다른 양상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

적으로 남자는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대상이 동성친구로 22명(43.1%)으로 나타난 반면, 여자는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대상이 어머니 39명(40.6%)으로 나타나 보살핌 주기 영역에서의 남녀별 가까운 사회적 관계 대상에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음으로 높은 응답은 남자는 어머니로 13명(25.5%)이었고, 여자는 동성친구로 27명(28.1%)으로 나타났다. 또한 형제·자매를 보살핌 주기 영역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 대상으로 응답한 남자는 6명(11.8%), 여자는 3명(3.1%)으로 나타나 보살핌 주기 영역에서의 남녀가 보이는 가까운 사회적 관계 유형은 다른 양상, 즉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연령 집단에 따른 심리적 기능 영역 별 가까운 사회적 관계 유형의 차이 검증

연령집단에 따라 각 영역 별 가까운 사회적 관계 유형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정보와 경험공유, 보살핌 주기 영역을 제외한 4개 영역에서의 교차분석 시 기대빈도 5이하인 셀이 20%를 상회하여 이들 영역에 대해서는 기술통계량에 대한 해석으로만 제한하였고, 정보와 경험공유, 보살핌 주기 영역에서만 χ^2 값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통해 모집단의 속성에 대해 추론하였다.

표 3의 결과를 살펴보자면, 근접추구, 행동에 대한 확신 받기, 격려와 도움 받기의 3개 영역에서는 각 셀의 기대빈도와 관측빈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집단에 따른 행비율 또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집단에 따른 위 3개 영역에서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 대상의 분포 양상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 영역 별 기술 통계치를 중심으로 해석해 볼 때, 근접성 추구 영역의 경우,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연령집단 각각 동성친구에 대해 73명(77.7%), 46명(68.7%)으로 가장 높은 응답 빈도를 공통적으로 보여주었고, 다음으로 어머니와 이성 친구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아버지에 대해서는 중·고등학생이 1명(1.1%), 대학생은 0명(0%)으로 모두 낮은 행비율을 보이고 있다.

행동에 대한 확신 받기 영역에서는 두 연령 집단 각각 어머니를 가까운 사회적 관계 대상으로 한 사람이 67명(68.4%), 48명(68.6%)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동성친구에 대한 응답이 17명(17.3%), 13명(18.6%)으로 높았으며, 두 집단 모두 이성 친구를 가까운 사회적 관계 대상으로 응답한 사람은 0명(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격려와 도움 받기 영역에서는 두 연령집단 각각 동성친구가 가까운 사회적 관계 대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1명(52.6%), 36명(58.1%)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형제·자매, 어머니에 대한 응답이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이성친구로 응답한 사람은 두 집단 모두 0명(0%)으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한편 정서적 지지 영역의 경우, 추리통계값인 χ^2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기대빈도 5이하인 셀이 20%를 상회하는 관계로 이에 대한 해석은 하지 않고 표본에 대한 기술 통계량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표 3 결과에 제시된 것과 같이 각 셀의 기대빈도와 관측빈도

표 3. 연령에 따른 심리적 기능 영역 별 가까운 사회적 관계 유형의 차이검증

		근접추구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동성 친구	이성 친구	기타	전체	카이제곱 검증	
연령	중·고등 학생	빈도	10	1	1	73	9	0	94	$\chi^2=4.96$ (df=5)
		기대빈도	10.5	.6	2.3	69.5	10.5	.6	94.0	
		행비율	10.6%	1.1%	1.1%	77.7%	9.6%	.0%	100.0%	
	대학생 이상	빈도	8	0	3	46	9	1	67	
		기대빈도	7.5	.4	1.7	49.5	7.5	.4	67.0	
		행비율	11.9%	.0%	4.5%	68.7%	13.4%	1.5%	100.0%	
전체	빈도	18	1	4	119	18	1	161		
	기대빈도	18.0	1.0	4.0	119.0	18.0	1.0	161.0		
	행비율	11.2%	.6%	2.5%	73.9%	11.2%	.6%	100.0%		
정서적 지지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동성 친구	이성 친구	기타	전체	카이제곱 검증	
연령	중·고등 학생	빈도	37	5	4	40	0	3	89	$\chi^2=19.35$ (df=5)
		기대빈도	36.4	7.5	3.5	33.5	5.8	2.3	89.0	
		행비율	41.6%	5.6%	4.5%	44.9%	.0%	3.4%	100.0%	
	대학생 이상	빈도	26	8	2	18	10	1	65	
		기대빈도	26.6	5.5	2.5	24.5	4.2	1.7	65.0	
		행비율	40.0%	12.3%	3.1%	27.7%	15.4%	1.5%	100/0%	
전체	빈도	63	13	6	58	10	4	154		
	기대빈도	63.0	13.0	6.0	58.0	10.0	4.0	154.0		
	행비율	40.9%	8.4%	3.9%	37.7%	6.5%	2.6%	100.0%		
행동에 대한 확신받기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동성 친구	이성 친구#	기타	전체	카이제곱 검증	
연령	중·고등 학생	빈도	67	5	6	17	0	3	98	$\chi^2=1.15$ (df=4)
		기대빈도	67.1	5.3	4.7	17.5	.0	3.5	98.0	
		행비율	68.4%	5.1%	6.1%	17.3%	.0%	3.1%	100.0%	
	대학생 이상	빈도	48	4	2	13	0	3	70	
		기대빈도	47.9	3.8	3.3	12.5	.0	2.5	70.0	
		행비율	68.6%	5.7%	2.9%	18.6%	.0%	4.3%	100%	
전체	빈도	115	9	8	30	0	6	168		
	기대빈도	115.0	9.0	8.0	30.0	.0	6.0	168.0		
	행비율	68.5%	5.4%	4.8%	17.9%	.0%	3.6%	100.0%		

 $\chi^2=4.96$
($df=5$)

 $\chi^2=19.35$
($df=5$)

 $\chi^2=1.15$
($df=4$)

격려와 도움 받기										
			어머니	아버지	형제 · 자매	동성 친구	이성 친구#	기타	전체	카이제곱 검증
연령	중 · 고등 학생	빈도	15	0	20	41	0	2	78	$\chi^2=5.57$ ($df=4$)
		기대빈도	13.9	1.1	16.7	42.9	.0	3.3	78.0	
		행비율	19.2%	.0%	25.6%	52.6%	.0%	2.6%	100.0%	
	대학생 이상	빈도	10	2	10	36	0	4	62	
		기대빈도	11.1	.9	13.3	34.1	.0	2.7	62.0	
		행비율	16.1%	3.2%	16.1%	58.1%	.0%	6.5%	100.0%	
전체	빈도	25	2	30	77	0	6	140		
	기대빈도	25.0	2.0	30.0	77.0	.0	6.0	140.0		
	행비율	17.9%	1.4%	21.4%	55.0%	.0%	4.3%	100.0%		
정보와 경험 공유										
			어머니	아버지	형제 · 자매	동성 친구	이성 친구	기타#	전체	카이제곱 검증
연령	중 · 고등 학생	빈도	16	2	10	57	5	0	90	$\chi^2=8.45$ ($df=4$)
		기대빈도	19.9	1.2	10.5	50.3	8.2	.0	90.0	
		행비율	17.8%	2.2%	11.1%	63.3%	5.6%	.0%	100.0%	
	대학생 이상	빈도	18	0	8	29	9	0	64	
		기대빈도	14.1	.8	7.5	35.7	5.8	.0	64.0	
		행비율	28.1%	.0%	12.5%	45.3%	14.1%	.0%	100.0%	
전체	빈도	34	2	18	86	14	0	154		
	기대빈도	34.0	2.0	18.0	86.0	14.0	.0	154.0		
	행비율	22.1%	1.3%	11.7%	55.8%	9.1%	.0%	100.0%		
보살핌 주기										
			어머니	아버지	형제 · 자매	동성 친구	이성 친구#	기타	전체	카이제곱 검증
연령	중 · 고등 학생	빈도	32	11	8	35	0	1	87	$\chi^2=19.65$ ($df=4, p<.001$)
		기대빈도	30.8	16.6	5.3	29.0	.0	5.3	87.0	
		행비율	36.8%	12.6%	9.2%	40.2%	.0%	1.1%	100.0%	
	대학생 이상	빈도	20	17	1	14	0	8	60	
		기대빈도	21.2	11.4	3.7	20.0	.0	3.7	60.0	
		행비율	33.3%	28.3%	1.7%	23.3%	.0%	13.3%	100.0%	
전체	빈도	52	28	9	49	0	9	147		
	기대빈도	52.0	28.0	9.0	49.0	.0	9.0	147.0		
	행비율	35.4%	19.0%	6.1%	33.3%	.0%	6.1%	100.0%		

주. 각 영역 별 대상의 # 표시는 기대빈도 0으로 실제 교차분석 시에는 제외된 범주임.

의 차이가 크고, 연령집단에 따른 행비율 또한 다르게 나타나 정서적 지지 영역에서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집단이 보이는 가까운 사회적 관계 유형은 다른 양상을 보여줄 수 있다. 중·고등학생 집단의 경우에는 동성 친구라고 응답한 사람이 40명(44.9%), 어머니라고 응답한 사람이 37명(41.6%) 순으로 높은 행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학생 집단의 경우는 어머니라고 응답한 사람이 26명(40.0%)으로 가장 많았고 동성친구의 경우 18명(27.7%)으로, 정서적지지 영역에서 중·고등학생 집단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 대상이 동성친구임에 반해 대학생 집단의 경우 동성친구에 대한 응답이 다소 낮게 나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버지를 가까운 사회적 관계 대상으로 응답한 중·고등학생은 5명(5.6%)인 반면, 대학생은 8명(12.3%)이 응답하였으며, 이성 친구에 대해서도 중·고등학생 집단의 경우는 0명(0%)이 응답하였지만, 대학생 집단의 경우는 10명(15.4%)이 응답하여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정서적 지지 영역에 있어서는 연령집단별 다소 다른 양상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보다 많은 표본을 확보함으로써 이후 모집단에 대한 추론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 정보와 경험공유 영역에서의 연령집단에 따른 가까운 사회적 관계 대상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각 대상에 따른 기대빈도와 관측빈도의 차이, 행비율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chi^2=8.45$, $df=4$, $p>.05$). 즉, 정보와 경험공유 영역에서 중·고등학생 집단과 대학생 집단 간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 대상에

서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고등학생 집단은 동성친구에 대한 응답비율이 57명(63.3%)으로 가장 높았고, 대학생 연령집단에서도 동성친구를 가까운 사회적 관계 대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29명(45.3%)으로 가장 높았다. 다만 차이를 보이는 것은 중·고등학생 연령 집단의 경우 어머니를 가까운 사회적 관계 대상으로 응답한 사람이 16명(17.8%)인 반면 대학생 연령 집단의 경우 18명(28.1%)이 어머니를 응답하여 더 높은 행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중·고등학생 연령 집단의 경우 이성 친구를 가까운 사회적 관계 대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명(5.6%)이었지만, 대학생 연령 집단의 경우 이성 친구를 가까운 사회적 관계대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9명(14.1%)으로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살핌 주기 영역에서 연령집단에 따른 가까운 사회적 관계 대상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각 대상에 따른 기대빈도와 관측빈도가 매우 다른 양상을 지니며, 연령집단에 따른 행비율 또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chi^2=19.65$ ($df=4$,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이는 즉 보살핌 주기 영역의 중·고등학생 연령 집단과 대학생 연령 집단이 보이는 가까운 사회적 관계 대상은 다른 양상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동성친구에 대해 가까운 사회적 관계 대상으로 응답한 중·고등학생은 35명(40.2%)으로 가장 높은 행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어머니로 응답한 사람이 32명(36.8%)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대학생 집단은 어머니라고 응답한 사람이 20명(33.3%)으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

으며, 아버지라고 응답한 사람이 17명(28.3%)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 차이를 보여준다. 또한 대학생 집단의 경우 동성친구를 가까운 사회적 관계 대상으로 응답한 사람이 14명(23.3%)으로 동성친구를 가까운 사회적 관계 대상이라고 응답한 중·고등학생 35명(40.2%)과는 큰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성과 연령 집단에 따른 심리적 기능 영역별 가까운 사회적 관계 유형의 차이 검증

성과 연령에 따라 심리적 기능의 각 영역별 가까운 사회적 관계 유형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성*연령집단*심리적 기능의 3변인 교차분석을 위해 먼저 남녀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남녀 집단 내 다시 연령집단으로 구분하여 가까운 사회적 관계 대상에서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남자 집단의 경우, 대학생 이상인 표본이 8명에 그쳐 이는 현실적으로 중고등학생 집단과 비교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교차분석 시 결과해석은 여자 집단 내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연령집단을 비교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심리적 기능의 모든 6개 영역에서의 교차분석 시 기대빈도 5이하인 셀이 20%를 상위하여, 결과해석은 기술통계량에 대한 해석으로만 제한하였다.

여자 집단 내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집단에서 각 영역별 가까운 사회적 관계유형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먼저, 근접성 추구 영역에서는 각 셀의 기대빈도와 관측빈도의 차이

가 크지 않았으며, 행비율 또한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즉, 성과 연령집단에 따른 근접성 추구에서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 유형이 각 집단 별로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여자 중·고등학생 집단의 경우 40명(78.4%)이 동성친구를 근접성 추구의 1순위 대상으로 응답하였으며 아버지, 기타라고 응답한 사람은 0명(0%)으로 가장 낮은 행비율을 보였다. 여자 대학생 연령집단에서도 마찬가지로 39명(67.2%)이 동성친구를 근접성 추구의 1순위 대상으로 응답하였으며, 아버지라고 응답한 사람은 0명(0%)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정서적 지지 영역에서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 유형의 양상을 살펴본 결과, 각 셀의 기대빈도와 관측빈도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행비율 또한 다르게 나타나 정서적 지지 영역에서 여자 집단 내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집단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 유형은 다소 차이를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여자 중·고등학생 집단의 경우는 21명(47.7%)이 어머니에 대해 가장 가까운 사회적 관계 유형으로 응답하였으며, 다음이 동성친구 18명(40.9%) 순으로 나타났다. 이성친구라고 응답한 사람은 0명(0%)으로 가장 낮은 행비율을 보였다. 여자 대학생 연령집단에서는 22명(37.9%)이 어머니를 가까운 사회적 관계 대상으로 보고하여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나 여자 중·고등학생의 응답율과 비교하면 다소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동성친구 17명(29.3%) 순으로 나타났으나 이 또한 여자 중·고등학생의 응답율에 비해 낮은 수치였다.

다음으로 행동에 대한 확신 받기 영역에서

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 유형의 양상을 살펴본 결과, 각 셀의 기대빈도와 관측빈도의 차이가 크지 않고, 또한 행비율에서의 차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즉, 행동에 대한 확신 받기 영역에서 여자 집단 내 중·고등학생 집단과 대학생 집단이 보이는 가까운 사회적 관계 유형이 각 집단 별로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여자 중·고등학생 집단의 경우 35명(71.4%)이 어머니를 1순위 대상으로 응답하였으며, 이성친구라고 응답한 사람은 0명(0%)으로 가장 낮은 행비율을 보였다. 여자 대학생 연령집단에서는 42명(68.9%)이 어머니를 1순위 대상으로 보고하였고, 이성친구라고 응답한 사람은 0명(0%)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요약하자면 각각의 성별 집단 내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집단은 행동에 대한 확신을 받는데 있어 1순위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 유형을 어머니로 보고하였으며, 그 외 다른 사회적 관계 유형의 양상 또한 유사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성과 연령집단에 따른 격려와 도움 받기 영역에서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 유형의 양상을 살펴본 결과, 각 셀의 기대빈도와 관측빈도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행비율 또한 다르게 나타나 격려와 도움 받기 영역에서 여자 중·고등학생 집단과 여자 대학생 집단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 유형은 다소 다름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여자 중·고등학생 집단의 경우는 23명(53.5%)이 동성친구를 1순위 대상으로 응답하였으며, 아버지와 이성 친구, 기타라고 응답한 사람은 0명(0%)으로 가장 낮은 행비율을 보였다. 여자 대학생 연령집단에서는 30명(58.8%)이 어머니를 1순위 대상으

로 보고하여 여자 중·고등학생이 동성친구를 1순위로 보고한 것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으며, 이성 친구에 대해서는 0명(0%)이 응답하여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성과 연령집단에 따른 정보와 경험공유 영역에서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 유형의 양상을 살펴본 결과, 각 셀의 기대빈도와 관측빈도의 차이가 크지 않고, 또한 행비율에서의 차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자 중·고등학생 집단의 경우 26명(55.3%)이 동성친구를 1순위 대상으로 응답하였으며, 아버지와 기타라고 응답한 사람은 각각 1명(2.1%), 0명(0%)으로 가장 낮은 행비율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여자 대학생 연령집단에서도 25명(46.3%)이 동성친구를 1순위 대상으로 보고하였고, 아버지와 기타라고 응답한 사람은 0명(0%)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보살핌 주기 영역에서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 유형의 양상을 살펴본 결과, 각 셀의 기대빈도와 관측빈도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행비율 또한 다르게 나타나 보살핌 주기 영역에서 여자 집단 내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이 보이는 가까운 사회적 관계 유형은 다소 다름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여자 중·고등학생 집단의 경우는 어머니라고 응답한 사람은 21명(47.7%), 동성친구라고 응답한 사람은 15명(34.1%)이었으며, 이성친구라고 응답한 사람은 0명(0%)으로 가장 낮은 행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여자 대학생 연령집단에서는 18명(34.6%)이 어머니를 가까운 사회적 관계 대상으로 응답해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아버지와 동성친구를 응답한 사람이 각각 15명(28.8%), 12명(23.1%)의 순서로 높은

행비율을 나타냈다. 반면에 이성 친구를 응답한 사람은 0명(0%)으로 나타났다. 상기한 바에 의해 보살핌 주기 영역에서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 유형에 대해 요약하자면, 성별 집단 내 중·고등학생의 경우, 동성친구에 대해서는 높은 응답율을 보인 반면, 아버지에게 대해서는 낮은 응답율을 보인 특징이 있다. 반면 대학생 집단의 경우 아버지에게 대한 응답율도 상대적으로 높이 나왔으며, 반면 동성친구에 대한 응답율이 중·고등학생의 경우 보다 수치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년기 가까운 사회적 관계의 발달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남녀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기능들의 영역별로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성별에 따른 심리적 기능 영역별로 가까운 사회적 관계 유형의 차이검증 결과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준 영역은 보살핌 주기 영역으로 나타났다. 남자 집단은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대상이 동성친구, 다음으로 높은 응답을 보인 대상이 어머니로 나타났으며, 여자는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대상이 어머니, 다음으로 높은 응답을 보인 대상이 동성친구로 나타났다. 나머지 영역에 대해 기술통계량에 대한 해석으로 보았을 때, 근접추구, 격려와 도움받기, 정보와 경험공유 영역에 있어서는 남녀 두 집단 모두 동성친구를 1순위로 답했으며,

행동에 대한 확신받기 영역에서는 남녀 두 집단 모두 어머니를 1순위로 답하였다. 정서적 지지 영역에서는, 남자 집단은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대상이 동성친구, 다음으로 높은 응답을 보인 대상이 어머니로 나타났으며, 여자 집단은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대상이 어머니, 다음으로 높은 응답을 보인 대상이 동성친구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성별에 따라 심리적 기능 영역별 가까운 사회적 관계 유형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남녀 모두 어머니와 동성친구가 가까운 사회적 관계 대상으로 응답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었으나, 심리적 기능 영역별로 남녀에 따라 어머니와 동성친구의 순위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남녀가 관계망의 상대적 구성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Campbell, 1990; Fischer, 1982; Moore, 1990)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연령에 따른 심리적 기능 영역별로 가까운 사회적 관계 유형의 차이검증 결과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준 영역 역시 보살핌 주기 영역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 연령 집단은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대상이 동성친구, 다음으로 높은 응답을 보인 대상이 어머니로 나타났으며, 대학생 연령 집단은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대상이 어머니, 다음으로 높은 응답을 보인 대상이 아버지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흥미로운 점은 대학생 집단에서 아버지가 가까운 사회적 관계 대상으로 높은 비율로 응답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대학생 집단에서 친구보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가까운 사회적 관계 대상으로 응답된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본 연구대상 특성상 대학생 집단의 여학생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의 가능성으로 추정되어진다. 나머지 영역에 대해 기술통계량에 대한 해석으로 보았을 때, 근접추구, 격려와 도움받기, 정보와 경험공유 영역에 있어서는 연령별 두 집단 모두 동성친구를 1순위로 답했으며, 행동에 대한 확신받기 영역에서는 두 집단 모두 어머니를 1순위로 답하였다. 정서적 지지 영역에서는 중·고등학생 연령 집단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대상이 동성친구, 다음으로 높은 응답을 보인 대상이 어머니로 나타났으며, 대학생 연령 집단은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대상이 어머니, 다음으로 높은 응답을 보인 대상이 동성친구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연령에 따라 심리적 기능 영역별로 가까운 사회적 관계 유형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고등학생 집단과 대학생 집단 모두 동성친구와 어머니가 가까운 사회적 관계 대상으로 응답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었으나, 심리적 기능 영역별로 두 집단 간 동성친구와 어머니의 순위가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두 집단 모두 동성친구가 가까운 사회적 관계 대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기에는 동성의 친구들이 부모와 동일한 정도의 정서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Furman과 Buhrmester(199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청년초기는 동년배의 압력에 가장 민감한 시기라는 Steinberg(1999)의 주장도 뒷받침하는 결과였다. 또한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집단 모두에서 친구가 부모보다 가까운 사회적 관계 대상으로 응답

되었던 Takahashi(2004)의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바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기능 영역별로 아버지에 대한 응답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애착기능 영역별로 아버지가 매우 낮은 응답비율을 보였던 장휘숙(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성 친구에 대한 응답 비율이 낮았는데, 이는 청년후기는 동성에서 이성으로 애착대상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라는 Steinberg와 Silverberg(1986)의 주장이나 이성친구가 부모보다 가까운 사회적 관계 대상으로 응답되었던 Takahashi(2004)의 선행연구 결과와는 다른 점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문화적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 하나의 가능성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으나,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수의 표집에 대한 분석을 통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성별과 연령집단을 고려한 집단간에 심리적 기능 영역별로 가까운 사회적 관계 유형의 차이를 기술통계량에 대한 해석으로 살펴보았을 때, 여자 중·고등학생과 여자 대학생 집단 모두 근접추구, 정보와 경험 공유 영역에 있어 모두 동성친구를 1순위로 답하였으며, 행동에 대한 확신받기 영역에서는 두 집단 모두 어머니를 1순위로 응답하였다. 정서적 지지, 격려와 도움받기 영역에서는 여자 중·고등학생 연령 집단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대상이 동성친구, 다음으로 높은 응답을 보인 대상이 어머니로 나타났으며, 여자 대학생 집단은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대상이 어머니, 다음으로 높은 응답을 보인 대상이 동성친구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역시 동성친구와 어머니를 가까운 사회

적 관계 대상으로 응답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었으나, 심리적 기능 영역별로 두 집단 간 동성친구와 어머니의 순위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청년기 성과 연령에 따른 심리적 기능 영역 별 가까운 사회적 관계 유형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 연구였으나 표본의 제한으로 모집단에 대한 추론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표본의 제약성은 교차분석 시 검증통계량인 χ^2 값의 해석을 하기위한 전제조건 (각 셀의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이 20% 이하)을 만족시키지 못해 기술통계량에 대한 해석으로만 제한되는 경우로 나타났다. 특히 성과 연령을 고려한 집단 간(남 중고/남 대학생, 여 중고/여 대학생)에 가까운 사회적 관계 유형이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볼 만큼 연구대상 표집의 수가 충분치 않았다는 점, 구성에 있어 대학생 집단에서 남학생 비율이 적었다는 점 등은 본 연구 결과와 관련해 보다 신중히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수의 표집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과의 차이점에 있어 흥미롭게도 대학생 집단의 후기 청소년기에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아닌 부모에 대한 친밀감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추후연구에서 인터뷰 과정 등을 포함하여 대학생 집단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청년기 동안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가 포괄적으로 규명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통해 보다 종합적인 관점

에서 청년기 사회적 관계 발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시도한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장휘숙 (2011). 호위대 모델에 기초한 한국 청년 성인들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 *한국 심리학회지: 발달*, 24(1), 1-18.
- 정성훈, 진미경, 정운선, 임효덕 (2006). 영아-어머니 애착과 관련 변인들에 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13(3), 21-37.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Antonucci, T. C., & Akiyama, H. (1987). Social networks in adult life and a preliminary examination of the convoy model. *Journal of Gerontology*, 42, 519-527.
- Antonucci, T. C., Akiyama, H., & Lansford, J. E. (1998). The negative effects of close social relations. *Family Relations*, 47(4), 379-384.
- Antonucci, T. C., Akiyama, H., & Takahashi, K. (2004). Attachment and close relationships across the life span.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6(4), 353-370.
- Antonucci, T. C., Fuhrer, R., & Dartigues, J. F. (1997). Social relations and mental health in a sample of community dwelling French elderly. *Psychology and Aging*, 12(1), 189-195.
- Belle, D. (1989). *Children's social network and social*

- support. New York: Wiley.
- Birditt, K. S., & Fingerman, K. S. (2003).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adults' descriptions of emotional reactions to interpersonal problems. *Journal of Gerontology: Psychological Sciences*, 58, 237-245.
- Bretherton, I., & Waters, E. (1986).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181-183, Serial No.209.
- Campbell, K. E. (1990). Network past: A 1939 bloomington neighborhood. *Social Forces*, 69(1), 139-155.
- Cassidy, J., & Shaver, P. R. (1999).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New York: Guilford.
- Dodge, K. A., Pettit, G. S., McClasky, C. L., & Brown, M. M. (1986).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1(2), 1-85.
- Fischer, C. (1982). *To Dwell among friends: Personal Networks in Town and C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 Furman, W., & Buhrmester, D. (1992). Age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networks of person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3, 103-115.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 Hazan, C., & Shaver, P. (1990). Love and work: An attachment theoretical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2), 270-280.
- Hazan, C., & Zeifman, D. (1994). Sex and psychological tether. In K. Bartholomew & D. Perlman(Eds.),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Vol. 5. Attachment. processes in adulthood, pp.151-177). London: Jessica Kingsley.
- Hinde, R. A. (1981). The base of a scienc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S. Duck & R. Gilmour(Eds.), *Personal relationships I: Studying personal relationships*(pp.122). London: Academic Press.
- Inoue, M., & Takahashi, K. (2000). Patterns of social relation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Using the Picture Affective Relationships Test. *Japanes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48, 75-84.
- Jones, D. C., & Vaughan, K. (1990). Close friendships among senior adults. *Psychology and Aging*, 5, 451-457.
- Kahn, R. L., & Antonucci, T. C. (1980). Convoys over the life course: Attachment, roles, and social support.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3, 253-286.
- Kobak, R. R., & Hazan, C. (1991). Attachment in marriage: Effects of security and accuracy of working mod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861-869.
- Lang, F. R., & Carstensen, L. L. (1994). Close emotional relationships in later life: Further support for proactive aging in the social domain. *Psychology and Aging*, 9, 315-324.
- Lewis, M. (1982). The social network model. In T.

- M. Field, A. Huston, H. C. Quarry, L. Troll, & G. E. Finley(Eds.), *Review of human development* (pp.180-214). New York: Wiley.
 - Lewis, M. (1984). *Beyond the dyad*. New York: Plenum.
 - Moore, G. (1990). Structural determinants of mens's and women's personal network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5, 726-735.
 - Parker, J. G., & Gottman, J. M. (1989).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in relational context: Friendship interaction from early childhood to adolescence, In T. J. Berndt & G. W. Ladd(Eds.),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 (pp.95-131). New York: Wiley.
 - Pierce, G. R., Sarason, R., & Sarason, I. G. (1996). *Handbook of social support and the family*. New York: Plenum.
 - Shaver, P. R., Hazan, C., & Bradshaw, D. (1988). Love as attachment: The integration of three behavioral systems. In R. J. Sternberg & M. L. Barnes (Eds.), *The psychology of love* (pp.29-70).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Steinberg, L. (1999). *Adolescence* (5th Ed). McGraw-Hill College.
 - Steinberg, L., & Silverberg, S. (1986). The vicissitudes of autonomy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7, 841-851.
 - Takahashi, K. (1974). Development of dependency among female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Japanese Psychological Research*, 16, 179-185.
 - Takahashi, K. (1990). Affective relationships and their lifelong development. In P. B. Baltes, D. L. Featherman, & R. M. Lerner (Eds.),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10. 1-27. Hillsdale, NJ: Erlbaum.
 - Takahashi, K. (2004). Close Relationships across the Life Span: Toward a Theory of Relationship Types. In Frieder R. Lang & Karen L. Fingerman (Eds.), *Growing Together: Personal Relationships across the Lifespan* (pp. 130-158).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kahashi, K., Inoue, M., Yamakaw, K., & Shibata, R. (2009). Development of social relationships with significant others from 3- to 8-year-old Japanese children: Nature and nurture. In H. Hogh-Olesen, J. Tonnesvang, & P. Bertelsen (Eds.), *Human Characteristics: Evolutionary perspectives on human mind and kind* (pp.184-204). Newcastl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 Takahashi, K., & Sakamoto, A. (2000). Assessing social relationship in adolescents and adults: Constructing and validating the Affective Relationships Scal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 451-463.
 - Takahashi, K., & Tokoro, M. (1999). *Assessing social relationships among elderly people*. Unpublished manuscript.
 - Urberg, K. A., Degirmencioglu, S. M., Tolson, J. M., & Halliday-Scher, K. (1995). The structure of adolescent peer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31, 540-547.
- 1 차원고접수 : 2012. 3. 31.
수정원고접수 : 2012. 7. 4.
최종게재결정 : 2012. 8. 30.

The Development of Close Social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Mi Kyoung Jin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o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close social relationships, the question as to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age, in the areas of psychological functions with middle/high/college students($n=211$) was examined. These close social relationships were evaluated through The Picture Affective Relationship Test(PART).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types of close social relationships in accordance with gender and age in the area of nurturing. Specifically, the percentages of friends were highest in the male group and mothers were followed by the percentages of friends. At the same time, the percentages of mothers were highest in the female group and friends, and were followed by the percentages of mothers. Next, the percentages of friends were highest amongst the middle/high school students and mothers were followed by the percentages of friends. Again, at the same time, the percentages of mothers were highest in the college students and fathers were followed by the percentages of mothers.

Key words : adolescence, close social relationships, social network